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 ②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및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③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취득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아닌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에 대하여 단일 상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③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④ 등기된 상호의 경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상호를 폐지한 경우,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업의 양도
ㄴ. 익명조합원의 사망
ㄷ. 영업자의 성년후견개시
ㄹ. 영업자의 파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4. 상법상 중개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중개에 의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 중개인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중개인에 의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 ⑤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5. 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 ② 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③ 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없다.
- ④ 확정기매매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⑤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6.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하여야 한다.
- ③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⑤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7.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 ②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면한다.
- ⑤ 상법은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 ③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④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9.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를 정한다.
- ③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⑤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10. 상법상 주식 및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원칙적으로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를 임치할 수 없다.
- ③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1.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②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④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⑤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12.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 ㄴ. 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ㄷ.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 ㄹ.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ㄷ, ㄹ

13.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14.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관으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그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15.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ㄷ.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 ㄹ. 주식양도시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ㄴ, ㄹ

16.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해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간이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반대하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 ④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 ⑤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은 허용되나,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17.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③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④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18.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

- ①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이 동의 하지 않더라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9.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②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제소시 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야 원고적격이 유지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이중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0.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고, 그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일정한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이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는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
- ⑤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그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이 재량으로 더 이상 감경할 수는 없다.
- 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상법상 이사의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22.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 소에는 모두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이다.
- ④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⑤ 결의취소 판결 및 결의무효확인 판결은 모두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있다.

23.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재무제표의 승인
- ② 경영위임
- ③ 회사의 계속
- ④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 ⑤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24.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더라도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하거나 높게 정할 수 있다.
- ④ 주주는 그 보유주식 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익을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25.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 ②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③ 유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분의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④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사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 ⑤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합병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26.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의 실가(實價)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 ③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이사 전원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27.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판례에 의하면,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회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 ④ 회사가 임기를 정하지 않은 감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 하더라도, 그 해임된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28.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주발행 유지청구의 상대방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이다.
-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재발급 받아야만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의 승낙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⑤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29.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 ③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 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취득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 ④ 사채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사채인수인은 사채의 전액을 납입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분할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6월 내의 제소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 중 합병등기 후 남아 있는 주식은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 ③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액 및 기타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병이 가능하다.
- ④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⑤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합병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31.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 ② 단순분할에 반대하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분할회사가 단순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분할회사는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 ⑤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32.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익준비금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만 자본준비금으로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3. 환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표의 발행인이 만기를 기재하면 그 수표는 무효이다.
- ②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본다.
- ③ 일람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이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을 기재하면서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그 환어음은 무효이다.
- ④ 환어음의 발행인은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어음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고, 이 때 제3자방이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무관하다.
- ⑤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수표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수표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발행한 수표는 무효이다.

34. A가 발행받은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는 ‘甲의 대리인 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乙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乙이 대리권을 가진 자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A의 어음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乙에 대한 어음상 권리만을 취득한다.
- ② 乙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A와 甲 사이에 민법상 표현대리(表見代理)가 성립한다면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 ③ A와 甲 사이에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A가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A는 표현대리인 乙에 대한 어음상 권리도 취득한다.
- ④ 乙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 ⑤ 乙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만일 발행인란에 ‘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乙의 날인이 되어 있다면,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35.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양도인에게 어음법에 따른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전제함)

- ①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 ② 소지인출급식배서에 의하여 환어음을 양수한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교부만으로 어음을 양도한 경우
- ③ 환어음의 소지인이 무담보문구를 기재하여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한 경우
- ④ 환어음의 소지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한 경우
- ⑤ 발행인의 부주의로 발행인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모두 누락된 환어음을 발행받은 수취인이 다시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그 어음을 양도한 경우

36. 어음의 양수인이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배서금지 어음이 아닌 것으로 전제함)

- ①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배서금지' 문구를 기재한 후 자신의 명의로 배서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 ②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무담보' 문구를 기재한 후 자신의 명의로 배서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 ③ 배서가 연속되고 그 최후 배서의 '피배서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한 경우
- ④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연한 입질배서를 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 ⑤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를 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37. 다음 사례에서 B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는 2020. 1. 20. B로부터 외상으로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1천만원을 2020. 2. 3.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다음날 A는 甲으로부터 발행받은 만기 2020. 2. 10., 어음금액 1천만원인 약속어음을 위 매매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B에게 배서·교부하였다. B는 A로부터 약속어음을 양수하면서 어음상 만기가 A의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인 2020. 2. 3.과 달리 2020. 2. 10.임을 알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 ① 2020. 1. 21. B가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취득하여도 그 시점에 B의 A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A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2020. 2. 10.까지 유예된 것으로 해석된다.
- ③ 2020. 2. 10. B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A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④ 2020. 2. 10. B가 甲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어음금 1천만원을 지급받으면 A의 B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도 소멸한다.
- ⑤ 2020. 2. 10. B가 甲에게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여 A에게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A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8. 어음법상 배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타인에게 어음을 배서·교부한 경우, 그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 ②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을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만기가 남아 있어도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없다.
- ③ 채권자가 공연한 입질배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환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으로 다시 배서·교부한 경우, 어음금 지급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④ 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일에 지급인에 대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채 그 날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교부한 경우, 그 배서는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⑤ 배서인이 환어음에 날짜를 적지 아니한 채 행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39. A가 B에게 발행한 수표의 양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A가 수취인란에 B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B는 수표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A가 "B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경우, B는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수표를 양도할 수 없다.
- ③ A가 "B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경우, B는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 ④ A가 "B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경우, B는 수표에 배서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 ⑤ A가 '지시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B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경우, B는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40.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 ①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여 인수한 경우
- ② 환어음의 인수인이 파산한 경우
- ③ 인수제시가 금지된 환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 ④ 인수하지 아니한 환어음 지급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않은 경우
- ⑤ 수표의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한다.
- ②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③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경매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는 경매절차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②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납세의무의 확정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③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④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⑤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법령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상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심사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사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 ②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 ④ 비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⑤ 완전모법인이 완전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④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⑤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될 기말잔액의 합계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내 용	금 액
(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초잔액 합계 (당기 중 추인된 항목은 없음)	5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300,000원
(3) 비용으로 처리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할 유류비	200,000원
(4) 비용으로 처리된 사업용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200,000원
(5) 비용으로 처리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200,000원
(6) 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 중 건당 1만원 초과 법정증명서류 미수취분	200,000원
(7)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계처리가 누락된 외상매출금	200,000원
(8)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자기주식처분이익	200,000원
(9)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200,000원

- ① 500,000원 ② 700,000원 ③ 900,000원
④ 1,100,000원 ⑤ 1,300,000원

9. 「법인세법」상 익금 및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법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③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영리내국법인 (주)A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A의 주주인 영리내국법인 (주)B가 수령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 ⑤ 법인이 과오납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주)A는 2020년 3월 중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B, (주)C, (주)D로부터 수입배당금 15,000,000원을 수령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배당지급 법인	현금 배당금*	「법인세법」상 장부가액**	지분율**	주식 취득일
(주)B	6,000,000원	300,000,000원	60%	2018년 8월 1일
(주)C	6,000,000원	600,000,000원	60%	2019년 11월 15일
(주)D	3,000,000원	600,000,000원	40%	2019년 9월 15일

* 배당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배당결의일: 2020년 2월 20일
** 주식 취득이후 주식수, 장부가액,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2) (주)B, (주)C, (주)D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3) (주)A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5,000,000,000원이다.

(4) (주)A의 제20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30,000,000원이다. 해당 이자비용 중 15,000,000원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비용이다.

(5) 비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익금불산입률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0%
출자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50%

- ① 5,010,000원 ② 3,300,000원 ③ 3,120,000원
④ 2,910,000원 ⑤ 2,100,000원

15.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0기(2020.1.1.~2020.12.3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주)A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0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제20기 대손충당금 계정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5,000,000원*	기초잔액	15,000,000원
기말잔액	30,000,000원	당기설정액	20,000,000원

* 당기상계액 중 2,000,000원은 법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임

(2)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중 유보 잔액내역

과목 또는 사항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3,000,000원
외상매출금(대손부인액)*	7,000,000원
대여금(대손부인액)	10,000,000원

*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하여 당기 중 「상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됨

(3) 제20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대여금	50,000,000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것임
미수금	300,000,000원	
매출채권	500,000,000원	
계	850,000,000원	

(4) 대손실적률은 1.5%로 가정한다.

- ① (-)10,000,000원 ② (-) 9,070,000원 ③ (+) 9,070,000원
- ④ (+)10,000,000원 ⑤ (+)19,070,000원

16.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식을 제외한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 ②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③ 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 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 ④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⑤ 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의 제20기(2020.1.1.~2020.12.3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과 관련된 자료이다. 법인세 환급 후 결손금 경정으로 징수되는 법인세액(이자상당액은 고려하지 말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19기(2019.1.1.~2019.12.31.) 법인세 관련 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350,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원	3,000,000원

(2) 당기에 결손금 100,000,000원이 발생하여 이중 80,000,000원을 소급공제신청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3) 법인세 환급 이후 제20기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인해 당초의 결손금 100,000,000원이 70,000,000원으로 감소하였다.

(4) 제19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없었다.

(5) (주)A는 결손금소급공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① 2,000,000원 ② 5,000,000원 ③ 6,000,000원
- ④ 10,000,000원 ⑤ 15,000,000원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0기(2020.1.1.~2020.12.31.)에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자료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용 자산의 화재내역

구 분	화재 전 장부가액	재해상실가액	화재 후 장부가액
건물	250,000,000원	250,000,000원	-
토지	500,000,000원	-	500,000,000원
기계장치	1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계	900,000,000원	300,000,000원	600,000,000원

(2)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2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법인세액은 200,000,000원이다.

(4) 당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150,000,000원	25,000,000원*	5,0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액임
** 무신고가산세 해당액임

- ① 93,750,000원 ② 150,000,000원 ③ 232,500,000원
- ④ 243,750,000원 ⑤ 247,500,000원

19.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750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③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이전하여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⑤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거주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1거주자로 본다.
- ③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받은 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정해진 경우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21.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거주자가 국내 주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로 된다.
- ③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이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을 말한다.
- ⑤ 비거주자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되고 특별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22. 거주자 갑의 2020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국내에서 지급 받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 (1) A증권사로부터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2) B은행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3) (주)C(비상장 내국법인)로부터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2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지급받았다.
- (4) (주)D(코넥스시장 상장법인)로부터 현금배당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① 33,000,000원 ② 34,430,000원 ③ 35,530,000원
- ④ 38,000,000원 ⑤ 42,180,000원

23. 거주자 갑의 2020년 상가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상가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다.

- (1) 임대기간 : 2019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 (2) 월임대료 : 2,000,000원
- (3) 임대보증금 : 500,000,000원
- (4) 상가부동산 취득가액 : 토지 100,000,000원, 건물 300,000,000원
- (5) 월관리비수입 : 500,000원
- (6) 2020년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 수입배당금 500,000원, 수입이자 300,000원, 신주인수권처분이익 200,000원
- (7)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연 2% 가정

- ① 33,000,000원 ② 33,200,000원 ③ 35,600,000원
- ④ 39,200,000원 ⑤ 41,600,000원

24.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주)A에 종업원(일용근로자 아님)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0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 (1) 급여 : 24,000,000원
- (2) 상여금 : 10,000,000원
- (3) 식사대 : 1,800,000원(월 150,000원×12개월)
- 갑은 식사대 이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 (4) 자녀보육수당(6세) :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 (5) (주)A가 납부한 단체환급부보장정보험의 보험료 :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 갑의 배우자가 보험의 수익자임
- (6) (주)A의 사택을 무상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5,000,000원
- (7) (주)A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일 2020년 10월 5일) : 20,000,000원

- ① 43,200,000원 ② 55,100,000원 ③ 56,300,000원
- ④ 57,100,000원 ⑤ 59,100,000원

25.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공동사업자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다.
-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 ③ 공동사업장의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그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다.
- 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26.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40세)의 2020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자녀세액공제액과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 (1) 갑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 30,000,000원
- (2) 갑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나이 : 6세, 8세, 10세
-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녀장려금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2020년에 입양 신고한 자녀는 없음
- (3) 갑의 연금계좌 신규납입액
 - ① 연금저축계좌 : 3,000,000원
 - ② 퇴직연금계좌 : 2,000,000원
- (4) 갑의 연금계좌 신규납입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한 금액은 없다.

- ① 600,000원 ② 750,000원 ③ 900,000원
- ④ 1,050,000원 ⑤ 1,150,000원

27. 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법령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된다.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2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내국법인 (주)A에서 경리부장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거주자 갑의 퇴직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 (1) 갑은 (주)A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퇴직공로금으로 5,000,000원을 별도 수령하였다.
- (2)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근속연수
-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4)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 ① 612,000원 ② 1,060,000원 ③ 1,249,000원
- ④ 1,392,500원 ⑤ 1,586,500원

29.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20년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 (1) 갑은 2020년 9월 15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1,200,000,000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였다.
- (2) 갑은 해당 주택을 2015년 6월 15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6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 (3) 갑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40,00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사실은 금융 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갑은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 ① 120,000,000원 ② 123,750,000원 ③ 133,750,000원
- ④ 495,000,000원 ⑤ 535,000,000원

30.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②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③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④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갑은 겸용주택A(도시지역 내 소재)를 을에게 일괄 임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갑의 2020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겸용주택A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1) 건물(단층) 및 토지 면적

구 분	건 물	토 지
주택	200㎡	2,500㎡
상가	200㎡	

(2) 임대기간 : 2020년 9월 1일 ~ 2022년 8월 31일

(3) 임대조건 : 월임대료 3,000,000원(매월 말 지급), 임대보증금 없음

(4) 2020년 9월 30일 현재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구 분	감정가액	기준시가
토지	480,000,000원	200,000,000원
건물	320,000,000원	200,000,000원

- ① 1,320,000원 ② 1,350,000원 ③ 1,500,000원
④ 1,650,000원 ⑤ 1,680,000원

32. 일반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2020년 10월 30일 폐업하였다. 폐업 시 사업장의 잔존 재화가 다음과 같을 때 2020년 제2기 동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1) 잔존 재화 내역

구 분	취득일	취득원가	시 가
제품	2020년 9월 1일	10,000,000원	9,000,000원
건물	2018년 12월 1일	85,000,000원	88,000,000원
소형승용차	2020년 1월 1일	30,000,000원	25,000,000원

(2) 추가자료

- 제품은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폐업일 현재 일부가 파손되어 시가가 취득원가에 미달한다.
- 건물은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 물 85,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15,000,000

(대) 장기미지급금 100,000,000

- 소형승용차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을 의미하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였다.

- ① 77,000,000원 ② 78,000,000원 ③ 89,000,000원
④ 90,000,000원 ⑤ 112,400,000원

33.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④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⑤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3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생산·취득재화가 공급의제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서 공급의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 ③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 ④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과세 2억원, 면세 2억원이며 사업장이 하나인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 제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작성일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입한다.

3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제조업자 (주)갑의 2020년 자료이다. 공통매입세액 정산과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고려한 (주)갑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2020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 공급가액의 내역

기 간	과 세	면 세
1월 ~ 3월	50,000,000원	50,000,000원
4월 ~ 6월	30,000,000원	70,000,000원
7월 ~ 9월	49,000,000원	51,000,000원
10월 ~ 12월	51,000,000원	49,000,000원

(2) 매입세액의 내역

기 간	과 세	면 세	공 통
1월 ~ 3월	2,5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4월 ~ 6월	2,200,000원	3,300,000원	-
7월 ~ 9월	2,500,000원	3,500,000원	1,000,000원**
10월 ~ 12월	3,500,000원	2,500,000원	-

* 2020년 2월 1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2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

** 2020년 9월 1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용 트럭을 1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

- ① 1,430,000원 ② 1,435,000원 ③ 1,440,000원
④ 1,442,500원 ⑤ 1,450,000원

36. 일반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갑의 2020년 제2기 매입거래이다. (주)갑의 2020년 제2기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 (1) 공급가액 9,000,000원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착오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기타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과 금액이 동일 과세기간에 확인되었다.
- (2) 업무용소형승용차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 (3) 종업원 식대를 지급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32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 (4) 직원 사택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 (5)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00,000원인 원재료를 수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세는 800,000원이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금은 없다.

- ① 2,100,000원 ② 2,280,000원 ③ 2,300,000원
④ 2,380,000원 ⑤ 2,500,000원

37.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차감 전)으로 옳은 것은?

- (1) 공급가액 : 450,000,000원
- 공급가액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행함
 - (2) 세금계산서 수령 매입세액 : 10,000,000원(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 (3) 거래처의 부도로 대손처리한 받을어음 내역*
- |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부도발생일 | 공급일 |
|--------------------|-------------|-------------|
| 2,200,000원 | 2020년 6월 1일 | 2019년 1월 1일 |
-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 (4) 의제매입세액 : 2,000,000원(한도 내 금액)
 - (5) 2020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 4,500,000원
 - (6) 중간예납고지액과 가산세는 없으며,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확정신고함
 - (7) 갑의 2019년 공급가액 합계액 : 900,000,000원

	납부세액	차가감납부세액 (지방소비세 차감 전)
①	33,200,000원	27,790,000원
②	33,200,000원	27,800,000원
③	33,300,000원	27,790,000원
④	33,300,000원	28,285,000원
⑤	33,300,000원	28,740,000원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을 공제한다.

39. 거주자 갑의 2020년 비상장주식 양수 및 양도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 (1) 2020년 2월 12일 어머니로부터 시가 500,000,000원의 주식을 3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 (2) 2020년 3월 23일 친구(갑의 특수관계인 아님)로부터 시가 700,000,000원의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5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 (3) 2020년 5월 15일 할아버지에게 시가 200,000,000원의 주식을 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4)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며, 양수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

- ① 130,000,000원 ② 160,000,000원 ③ 190,000,000원
④ 250,000,000원 ⑤ 280,000,000원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를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선박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박제조사가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④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간 서로 교환한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로서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